

종합

# J프로젝트 주관 SPC 3월 설립

〈특별법인〉

## 전남도 로드맵 발표... 2,500만평 우선 개발 4월 개발계획승인 신청前 출자금 확보 관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을 주관할 메인SPC(특별법인)가 오는 3월 설립된다. 또 올 상반기 중 전체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이뤄진다.

전남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J프로젝트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 전체 개발예정부지 3천만 평 가운데 전경련이 주도하는 500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 2천500만 평의 개발을 주관할

메인SPC가 오는 3월 설립된다. 300~500억 원 규모의 설립자본금으로 출범하는 이 메인SPC에는 대주건설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경남기업, 썬카운티 등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이어 올 상반기 중 개발예정부지 2천500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고 본격적인 부지조성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발예정부지가 사실상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5천100억 원의 출자금 확보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4천억 원 정도가 마련된 상태다.

전남도는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미국 측 업체를 상대로 투자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출자금을 전액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출자금이 일부 마련되지 못할 경우 확보된 출자금만큼의 부지만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프로젝트 예정부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되거나, 개발예정부지가 사실상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출자를 약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자의 진정성'을 타진한 결과 현재로서는 4천억 원 정도의 출자금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3천만 평 동시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 단계적 개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영암 삼호와 해남산이 일대 500만 평에 총 사업비 4조3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인구 2만5천 명 규모의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금호산업과 대림건설, 롯데건설, 한국국토개발,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한다. 오는 3월 개발을 주도할 SPC를 설립하고, 이어 4월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 MOU 조인식  
\*일시: 2007. 2. 7(수) \*장소: 광주광역시 소회의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정태석 광주은행장이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차세대 전자금융 협력(MOU) 조인식'을 가졌다. 광주시의 광주은행은 건교부가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인 교통카드 전국호환시범사업, 국내의 스마트 카드 R&D센터 유치 등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청 제공)

## 감사원, 전남도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도가 2006년도 자체감사 활동 평가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2006년도 자체감사 활동 최우수기관으로 뽑혀 7일 열린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관계 회에서 최우수기관 상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2006년도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는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등 모두 151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 운영 실태를 평가해 분야별로 8개 최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남도가 선정됐다.

/박치경기자unipark@kwangju.co.kr

## 大選까지 고강도 공직감찰

정부, 오늘부터

정부는 올해 12월 대선때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출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강도높은 공직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감사원 주관으로 국가 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주요 공직단체 등 175개 기관 감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대강당에서 '공직기강 확립 300일 추진 결의대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요원 등 인원 740여명을 투입해 공직자의 금

품수수과 근무기강 해이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 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실 전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실 전후 공직기강 감찰은 ▲민원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및 유용, 설 띄움 요구행위 ▲출장을 방지한 외출이나 음주 등 사적업무를 보다가 밝게 청사로 돌아와 시간의 근무상황을 부담하게 체크하는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철도 등 다중이용 시설 운영대책과 열·전기 등 주요 기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집중 대상이다.

/연환뉴스

## 5·18 기념재단·태국 등 10개국 인권단체 참여 '亞민주화운동 광주네트워크' 발족

국내의 5·18정신 계승 사업과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한데 아우를 아시아 민주화운동 단체들의 협력체인 '아시아 민주화운동 광주네트워크'가 광주에서 결성된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5월 열리는 광주국제평화포럼 기간 중 '아시아 민주화운동 광주네트워크'를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아시아민주화운동 광주네트워크'는 그동안 국내 전문가 및 인권단체 대표들만 구성됐던 기존의 기념재단 국제사업위원회에 인도

네시아·태국·필리핀 등 10개국 10여개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기념재단은 네트워크 결성을 위해 5·18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해 온 독일과 미국 등의 동포단체와 연대활동도 강화하고 재단 국제인턴 과정을 거친 필리핀 활동가들 관련 사업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5·18기념재단은 8일 재단 회의실에서 '2007 국제사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제협력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한다. '광주를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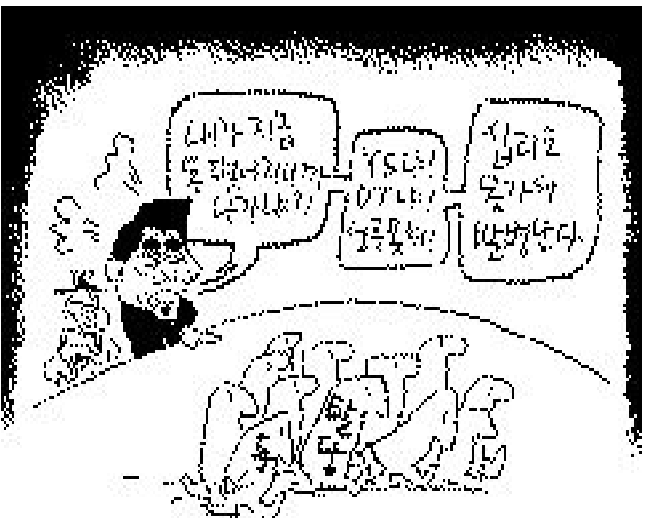
래'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올해 국제사업은 ▲'아시아민주화운동 광주네트워크' 발족(5월) ▲광주인권상(5월) ▲광주국제평화포럼(5월) ▲광주아시아인권학포(9월) ▲아시아인권광주포럼(10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 김찬호 국제협력팀장은 "올해 국제사업은 형식적인 회의나 공동 사업보다는 정직한 교류와 인적·물적 교환에 중점을 뒀다"면서 "5월 정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hlhm@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말도 많고, 복잡하고, 씁쓸하다

## 송정리역 지하철·국철간 연결공사

광주시 4월중 14억 투입 에스컬레이터 설치

올해 말 완공되는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송정리역 대합실과 국철(호남선) 송정리역 대합실을 연결하는 공사가 추진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14억7천200만원을 투입, 오는 4월부터 12월 말까지 도시철도 1호선 송정리역 지하 1층 대합실과 국철 송정리역 1층 대합실 입구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연결구간은 총길이 27.5m·폭 7.5m의 통로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

치하는 것이며, 연결구조는 도시철도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상으로 나온 뒤 국철 지하 1층 대합실로 이어지는 형태다.

서울역 등 타 지역의 지하철과 국철이 지하 대합실에서 곧바로 지상을 거쳐지 않고 지하로 연결되는 점과 비교하면 송정리역 도시철도·국철 연결은 지하~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승객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송

정리역 도시철도와 국철의 전반적인 위치 및 구조가 지하통로를 개설하기 어렵고, 향후 한국철도공사(KTX) 송정리역 증개축 방안 마련시 지하통로를 개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부지 무상사용 및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은 서창역~옥동 차량기지(총 연장 8.14km)까지 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

함평에 쌀 제분·가공공장 道, 郡과 310억 투자협약

함평에 전국 최초로 쌀 제분·가공장이 건립된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7일 도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이석형 함평군수,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제분'과 31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대선제분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만 4천여평의 부지에 310억원을 투자해 쌀 제분과 떡, 제과, 제빵, 제면 등 쌀을 이용한 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키로 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KT&G 기업광고 못한다 법원 "사실상 담배광고" 불허

담배 제조·판매 회사인 ㈜케이티엔지(KT&G)가 라디오를 통해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KT&G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KT&G의 기업 광고도 담배와 관련된 광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KT&G는 TV는 물론 라디오를 통해서도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할 수 없다. /연환뉴스

### 訃告

大人 全州 李公官珍(주)대한상호저축은행 회장·(재)홍성학회 이사장·前광주양동상가(주)대표(대)께서 老患으로 2007年 2月 7日(음 12月 20日) 20時 訃別(향년 84세)하셨기에 삼가 이에 訃告합니다.

發軔日時... 2007年 2月 9日(금) 午前  
發軔場所... 그린장례식장·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사농공관광 진년편  
葬地... 전남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국제도덕현묘지  
장성불당(진덕법당)묘지

2007年 2月 8日

자 딸 아들 손녀  
부 이 손자  
김박오박최 이  
미숙정은혜금형성홍기장 이  
정희화화경오기홍훈홍홍 이  
손녀 이이이이이이이이  
이이이이이이이이  
채금성정승승동창상 이  
영효미모미찬찬원신 이

연락처: 그린장례식장(특실) (062)2504455

### 토성

대한민국 대표 황토제품 전문브랜드

## 흙침대에도 격(格)이 있습니다

### 황토흙침대로 가족의 건강을 지킵시다!

#### 토성제품의 특징

1. 황토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입니다.
2. 황토는 항균, 항취기능을 가지고 있어 집 먼지 등에 위생적으로 대응합니다.
3. 황토재로는 100% 국내산 황토로 만들었으며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2mm내외의 작은 황토를 사용함으로 몸에 베이지 않고, 광물(황토·탄산·등)인자페르도 함유신안 등 유용성분을 함유합니다.
5. 국내 유일의 자연온열 필름소파(황토를 첨가한 쿠션), 기구와 침구는 자연생명력과 원적외선 방식의 온열필름 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웰빙제품입니다.

■ 흙침대(SC면사) ■ 황토침대(SC면사)

취급점 빛고을가구점 시몬스침대 (062)959-5800 시몬스침대금남로점 (062)527-1575